ECONOMIC FOCUS

2024. 7. 25

삼성증권

Global Macro Team

정성태
Senior Economist
sungtai.chung@samsung.com

금종호
Economist
jongho.keum@samsung.com

한국 2Q GDP

성장률 전망 2.5%로 하향; 10월과 11월 금리인하 전망 유지

-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지속하며 2Q 성장률 금융시장 예상을 하회. 그간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침
- 올해 금리인하 전망 10월과 11월 두 차례 유지. 1) 내수 부진 지속과 글로벌 제조업 둔화 가능성, 2) 연준 9월 첫 금리 인하 전망, 3) CPI 연말 물가목표에 근접 등이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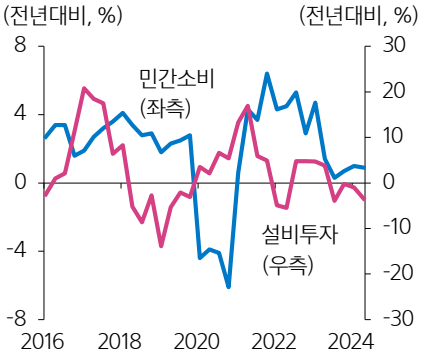
'24년 2Q 한국의 GDP는 전년 대비 2.3%(전기 대비 -0.2%)를 기록하며, 당사 전망(2.4%)에 부합했다(Bloomberg consensus는 2.5%). 이는 반도체 등 IT를 중심으로 수출과 제조업이 각각 전년 대비 3.6%와 4.5%를 기록했으나, 민간소비(0.6%), 설비투자(-0.2%), 건설투자(0.1%) 등은 부진을 지속한 영향이다.

'24년 연간 한국 성장률 2.5%로 하향; 올해 금리인하 전망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유지

당사는 '24년 연간 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.7%에서 2.5%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. 이는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자동차, 의류 등 재화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, 건설 및 설비 투자도 부진하기 때문이다. 아울러 그간 한국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던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고 있다. 실제로 7월 1~20일 수출은 전년 대비 18.3%를 기록했으나, 반도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0% 내외로 추정된다. 아울러 글로벌 교역의 선행지표인 S&P의 글로벌 제조업 PMI는 5월 51.0에서 6월 50.9로 둔화된 가운데, 7월 미국, 유럽 등 선진국 제조업 PMI는 6월 대비 하락했다. 중국 제조업 활동의 proxy인 트럭운행 지수도 7월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져, 주택시장 침체로 중국 내 제조업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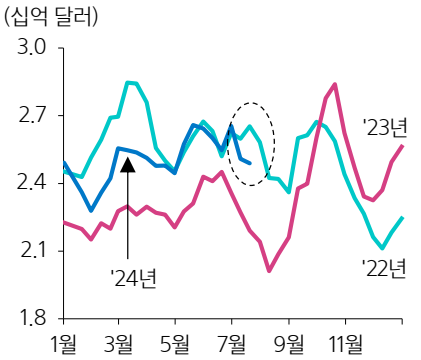
한편, 당사는 올해 한국의 금리인하 횟수를 기존의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유지한다(시장 컨센서스는 한 차례, 7월 Bloomberg 서베이 기준). 이는 상반기 성장률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위축으로 전년 대비 2.7%를 기록하며 5월 한은의 전망(2.9%)을 하회한데다, 올해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목표인 2%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. 반면,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1) 한은이 최근의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계하고 있으며, 2) 미국의 첫 금리인하 시점을 9월로 전망하기 때문이다.

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


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한국 일평균 수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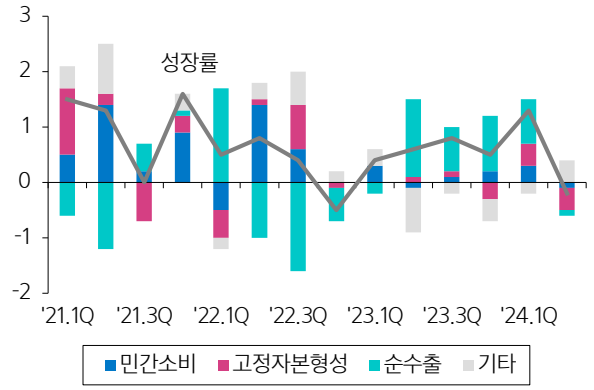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삼성증권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한국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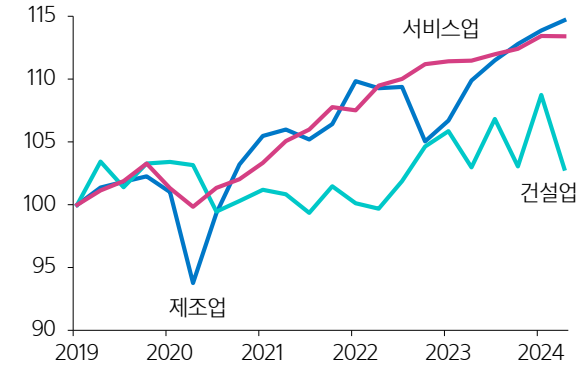
(전기대비, %, %pts)


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한국 업종별 생산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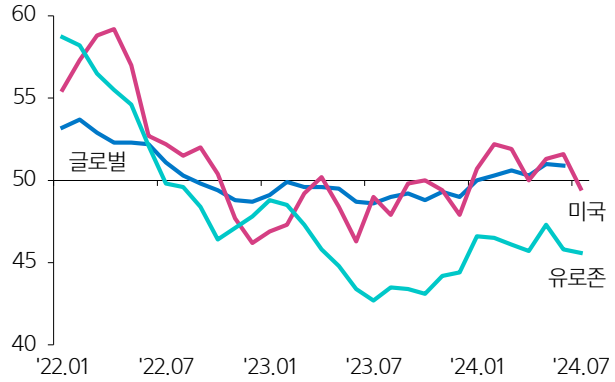
(2019.1Q=100)


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S&P Global 제조업 PMI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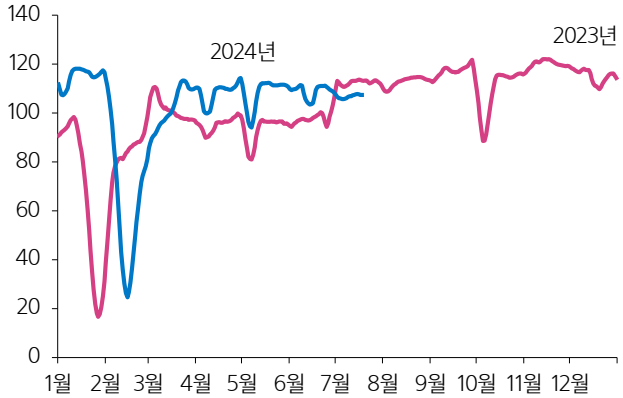
(지수)



자료: S&P Global, 삼성증권

중국 컨테이너 운행 지수 전년 수준 하회

(2019=100)



참고: 7일 이동평균
자료: WIND, 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Member of
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